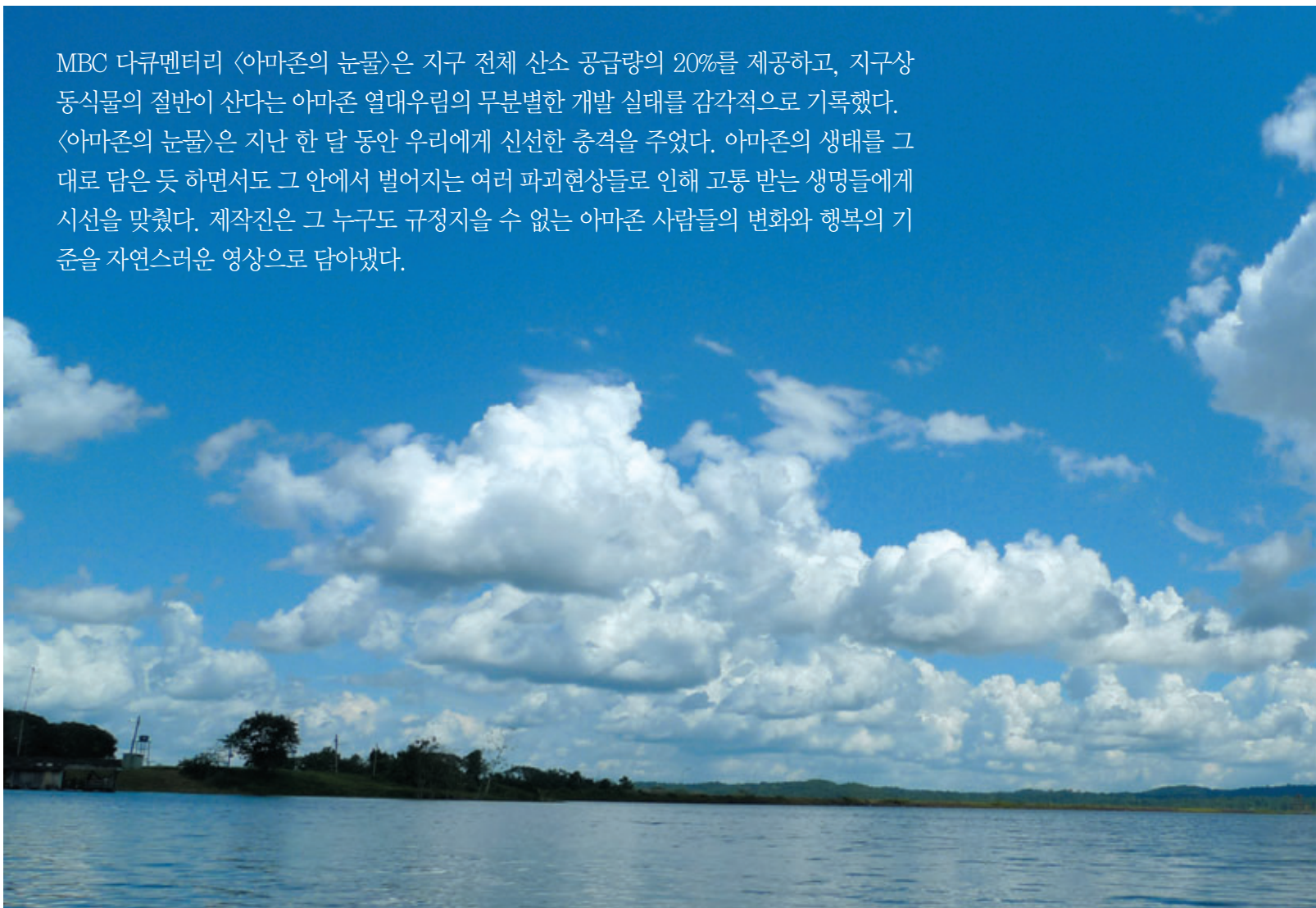


+ 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세상의 눈물이 **아마존**에서 그치기를

MBC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은 지구 전체 산소 공급량의 20%를 제공하고, 지구상 동식물의 절반이 산다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무분별한 개발 실태를 감각적으로 기록했다. <아마존의 눈물>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아마존의 생태를 그대로 담은 듯 하면서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파괴현상들로 인해 고통 받는 생명들에게 시선을 맞췄다. 제작진은 그 누구도 규정지을 수 없는 아마존 사람들의 변화와 행복의 기준을 자연스러운 영상으로 담아냈다.



아마존 북부 적도 인근에 240여명만 남아 있는 ‘조에’ 족의 원시생활 방식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뽀뚜루’라는 나무 막대를 아랫입술에 꽂고 다니며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온 방식으로 살아가는 조에족은 새, 원숭이, 물고기 등을 사냥해 먹는다. 하지만, 애완동물을 좋아해 거북이나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기르기도 한다(애완동물은 잡아 먹지 않는다). 옷을 입지 않고 살며, 일처다부제와 일부다처제도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다.

300일 가량 밀림 속을 누빈 제작진은 아마존 인디오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담아냄은 물론, 간염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도 아들에게 사냥을 가르치는 아버지, 민간요법으로 자궁암을 이겨낸 여추장, 아빠에게 버림받고 허드렛일을 하며 지내는 소녀 등 그들의 인간적 모습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밀림에 사는 희귀 동물 슬로스, 신비의 생물로 여겨지는 부흥 돌고래 보투, 식인 물고기로 유명한 피라냐 떼 등 경이로운 생명체들은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작진은 온 몸이 벌레에 물려 흥터로 빼곡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배 사고에도 불구하고, 인디오들로부터 원숭이 고기를 받아먹고, 독한 코담배에 괴로워하면서도 착실하게 아마존을 담아냈다.



이미지 제공 - 하림 MBC 촬영감독